

‘에스 키즈 존’ 클래식 콘서트 꼬마관객 예술감수성 키워요

양상블칸타빌레 ‘키즈 클래식 콘서트’ 13일 광주 디엠홀
엘가 ‘사랑의 인사’로 시작, OST·가요 등 익숙한 곡 연주



양상블칸타빌레 대표 김은민

장양유 클라리네티스트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과 달리, 어린이를 위한 ‘에스 키즈 존’을 표방하는 클래식 콘서트가 열린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곡으로 레퍼토리를 꾸려 ‘꼬마 관객’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운다는 취지다.
양상블칸타빌레(기획연출 김은민·칸타빌레)가 ‘키즈 클래식 콘서트’를 오는 13일 오후 5시 광주 디엠홀에서 펼친다. 부제는 아이들의 웃음을 형상화한 ‘ㅋㅋㅋ’.
공연의 막은 바이올린 소품, 첼로 등 다양한 편곡으로 연주되는 엘가 ‘사랑의 인사 Op.12’로 연다. 엘가가 결혼을 앞둔 약혼녀 캐롤라인 엘리스 로버츠를 위해 만든 사랑의 헌사곡이다. 애초에

바이올린 버전으로 작곡됐으나 중후한 첼로 버전 등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았던 작품으로, 바이올린으로 묘사하는 벨칸토 선율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화성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멘델스존 ‘봄노래 Op.62. 6번’과 바흐 ‘미뉴에트 1,2,3번’ 등도 봄과 어울리는 곡들이다. 바이올린은 강지·김은민 등이 연주하며 비올라는 신세민, 첼로는 김도영 등이 연주한다. 피아노에 정은민.
칸타빌레 단원들이 들려주는 디즈니 신데렐라 OST ‘비비디바비디부’, 오즈의 마법사 중 ‘오버 더 레인보우’, 로이 앤더슨 곡 ‘고장난 시계’도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칸타빌레 키즈

단원인 이지니(방림초4·바이올린)는 고세크 곡 ‘가보르’, 윤서원(살레시오초2·성악)은 ‘행복한 아기씨앗(김영민 곡)’ 및 ‘별들도 꽃처럼(조오령)’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한편 광주예고 및 중앙대 음악학부, 독일 예센 Folkwang 국립음대(석사)를 졸업한 장양유 클라리네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K.622 2악장’,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를 들려줄 예정이다. 장 씨는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진출한 바 있으며 예음콩쿠르(1위), 음악춘추콩쿠르(2위), 성정음악콩쿠르(3위) 등에서 입상했다.
이 밖에도 정근과 이수인이 부르는 ‘숨사탕’, 김

완기·장지원의 ‘잠 좋은 말’, 안예은 ‘문어의 꿈’ 등도 동심을 자극하는 곡들이다.
칸타빌레 김은민 대표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인 어린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하는 클래식 콘서트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의 키’가 한 뼘 더 자랐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문어의 꿈’, ‘숨사탕’ 등을 감상하며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상블 칸타빌레는 202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정기연주회 ‘Start With Basic’, 올해 이태리 피렌체 뮤직 페스티벌에서 ‘푸치니 서거 100주년 연주회’ 등을 마친 클래식 단체다.
전석 무료.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버스킹 월드컵 페스티벌’ 5월3일까지 참가 뮤지션 모집



제2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경연 장면.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전 세계 뮤지션들이 즐기는 도심형 음악 축제 ‘광주 버스킹 월드컵 페스티벌’.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이 5월 3일까지 ‘2024 광주 버스킹 월드컵 페스티벌’에 참가할 뮤지션을 모집한다.
총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버스킹 요소에 관객들의 이목을 끄는 ‘경연’ 방식을 접목,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국적불문 19세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버스킹 뮤지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 팀도 참가 가능하다. 본선 진출팀에 활동비 최대 80만원(인원별 차등)을 지급하며, 경연기간 내 숙박(2박) 및 내년 해외 음악축제·마켓 공연 또는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버스킹월드컵 로고를 삽입한 라이브 공연 영상 링크를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면 된다. 본선 진출자는 예선 영상의 멤버·악기 구성을 변경할 수 없다. (지나해 경연 본선 진출팀 및 역대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
본선 1차(32강)는 10월 3-4일 진행하며 2차(16강)는 5일 열린다. 결선 무대는 10월 6일.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고교알개’·‘미워도 다시한번’ ... 고전영화 추억 속으로

‘ACC 양반극장’ 11일부터 네차례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맨발의청춘 등

남편을 잃고 여섯 살 딸 오희,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여인, 그 집 사랑방에 하숙을 하게 된 중년 남성.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지만 시어머니 등 주변의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옥희도 ‘사랑방 손님’을 잘 따르고 두 남녀도 감정적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두고 온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결국 그는 사랑방을 떠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여인과 오희는 안타까울 뿐이다.
학창 시절 배웠던 주요섭 작가의 원작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중년남녀의 엇갈린 사랑을 담담하면서도 은유적인 서사로 그린 소설로 기억된

다. 오늘날의 배경, 정서와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사랑을 모티브로 인간 내면의 심리를 섬세하면서도 탐미적으로 그렸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비롯해 ‘맨발의 청춘’ 등 고전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숙·ACC재단)이 진행하는 ‘2024 ACC 양반극장’이 그것. 프로그램을 ‘양반극장’이라 명명한 데서 보듯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이다. ACC 문화정보원 극장3(10시30분)에서 11일 ‘고교알개’, 6월 13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8월 14일 ‘맨발의 청춘’, 10월 10일 ‘미워도 다시한번’ 등 모두 네 차례.
문화예술사업팀 박지는 담당자는 “이번 ‘ACC 양반극장’은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 문화예술복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며 “어르신들

이 젊은 시절 한번쯤 봤을 법한 추억의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든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와 노년층들이 문화예술을 폭넓게 접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첫 상영작인 석래명 감독의 1977년 작품 ‘고교알개’는 1970년대 고교시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하이틴 영화의 대표작으로 당대 10대들의 사랑과, 우정 등을 낭만적으로 그려 주목을 받았다.
무료이며, 지역 어르신 대상 우선 사전접수. (잔여석 한해 일반인 당일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4 ACC 양반극장
★노들레스 시네마★
·4.11. 목 고교알개 1977년·
·6.13. 목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년·
·8.14. 목 맨발의 청춘 1964년·
·10.10. 목 미워도 다시한번 1968년·
10:30 상영

정순애 작가 ‘인생길’, 무등미술대전 문체부 장관상 수상

서예 손미선 작 ‘봄비’ 등 5점 대상
우수상·특선·입선 등 1067점 입상

최근 막을 내린 제40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정순애 작가가 ‘인생길’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한국화 부문에서는 이철 작가의 ‘중쟁’, 문인화 부문 이은정 작가의 ‘목죽’이 서양화 부문은 문희진 작가의 ‘Still Life 2’, 공예 부문 최영 작가의 ‘환희’, 서예 부문 손미선 작가의 ‘봄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 전체 입상작은 문화체육부장관상 1점, 대상 5점, 우수상 27점, 특선 361 점, 입선 673점 등 총 1067점이 입상했다. 수채화, 판화, 조각부문은 대상작품을 선정하지 않았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총 1815점이 출품됐으며 지난해보다 256점이 줄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39회 대전 이후 3개월 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출품수를 기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종경 조선대학교 교수(한국화)는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현대적인 경향을 확연히 보여줌으로 국제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독특한 기량들을 선보였다. 수묵, 산수화, 채색화, 비구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수준 또한 수작이 많았다. 현대 회화가 요구하는 구성, 색채 등 표현방법에 있어 탁월한 감각과 뛰어난 재능을 보인 작품들이 많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회 개막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다.
한편 무등미술대전은 지난 1985년 지방미술문

화의 향상발전과 전국 미술인의 등용문을 기점으로 시작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으며 전국의 신인 미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 명단
▲한국화=민병태 ‘가을 달마산’, 최보경 ‘이상향’ ▲문인화=최희정 ‘그리움 안고’, 권희선 ‘꽃노을에 물들다’ ▲서양화=김보미 ‘Ing’, 권봉균 ‘산책’, ▲수채화=한복에 ‘꽃사과’, 양명희 ‘옥수수’ ▲판화=장위현 ‘아름다운 선율’, 박채정 ‘꿈의 대화’ ▲조각=김유림 ‘In my room’, 박정배 ‘진화’ ▲공예(금속)=김현선 ‘traditional object serries 02.04’, 김지훈 ‘무제’, 이규혁 ‘달항아리’, 방향란 ‘검이불루화이불지-서랍장’, 김용석 ‘목죽도’ ▲서예=이몽룡 ‘울지마라’, 김주희 ‘맹호연시’, 김인숙 ‘백묵란’, 광미레 ‘해야 솟아라’, 김성훈 ‘정당’ ▲사진 최수정 ‘어느해 겨울’, 김양은



정순애 작 ‘인생길’

‘나는솔로’, 이정희의 ‘화장’, 박광미 ‘학춤’, 정주현 ‘휴식’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근대 여성들의 발자취 ‘두흙길 도보 프로그램’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은 광주 근대 여성들의 발자취를 ‘성평등 관망’에서 재조명하고 해설하는 ‘광주여성 두흙길 도보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이 지난 2022년부터 남구 양림동, 동구 충장로 일원에서 총 3개 ‘광주 여성사 길’을 발굴해 광주 시민들과 향유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운영 사업이다.
가장 먼저 개발된 ‘두흙길’은 목출 출신 미국 선교사로, 양림동에서 활동한 서서평(1880-1934)의 발자취를 조명한다. 2명 이상 신청할 시 전문 해설사를 무료 지원하며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
서서평(본명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은 한국 근대여성 교육의 씨를 뿌리고 여성 자립 및 인권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34년 사망 당시 시신마저 기증하며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던 인물이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